ChungNam Report
충남리포트 Vol.298
2018. 2. 22.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성 태 규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gsung@cni.re.kr

본 연구는 충남도내 장애인의 접근권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CONTENTS

1.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
2. 충남 장애인 접근권 실태조사
3. 정책 제언

요 약

- 장애인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증진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를 통해 찾을 수 없는 '장애인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였음.
-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유형별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상이함. 즉 지체 · 청각 · 시각 · 뇌병변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개선과제를 조사함
- 중앙정부, 충남과 시군, 민간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 : 1 · 2급 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서, 병원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함
- 충남과 시군 차원 : 행정구역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 통합연계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차원 :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이 안드로이드폰을 애플폰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제작해야 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

●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증진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장애인의 접근권 특히 편의시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통해 실태가 조사되고 있음. 2013년 조사에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160개 세부항목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음.
-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격년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본 조사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으로 주 조사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 기존 실태조사는 이미 설정된 구조화된 기준에 의한 실태 이외에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기존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인 조사가 아니라, 인터뷰 방식의 동태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충남 장애인 접근권 실태조사

● 조사개요

– 본 연구조사는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각 4회의 자문회의와 유형별 장애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2회의 집담회를 가짐

1. 편의시설

● 현행 편의시설증진법이 제정되어 공공건물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편의시설증진법에 맞추는 데에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음. 건축법과 상충되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축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이 제기한 불편사항 중 하나인 경사로는 법에 따라 설치되었더라도 폭경사도 등이 실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환경적으로 고려된 벽돌식 보도블록도 휠체어 이동에 지장을 줌.

●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 공간이 좁고,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도구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공공기관 주차장이 친환경 목적으로 잔디와 같이 혼합해서 조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차장은 휠체어 시용에 불편함. 뇌병변 장애인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장 관람석도 개축될 필요성이 있음

● 결국 장애인은 장애유형별로 편의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2. 이동권

1) 장애인 콜택시

- 2017년 현재 충남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율은 78.8%임.

-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

- 충남의 이동지원센터는 지자체마다 운행시간이 다르지만, 심야나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곳은 없음.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긴 대기시간도 문제임. 사전예약제와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지자체 이동센터마다 상이함. 충남의 지자체는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전 혹은 일주일 전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점심시간에는 운행하지 않고, 퇴근시간 1시간 전인 17시부터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음. 17시 이후에 운행하면 퇴근시간에 맞춰 차고지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임. 또한 장애인 콜택시 기사와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의 불친절함에 많은 장애인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2) 저상버스

- 충남의 많은 저상버스는 주로 천안·아산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운영 중이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에는 여전히 불편함. 또한 국토교통부는 농어촌지역을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지역의 도로환경이 정비되어야 함.

-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문제임. 일부 저상버스 운전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면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인도가 정비되지 않은 차도에서는 저상버스 경사로와 인도 사이에 단차가 발생함.

● 저상버스 관리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저상버스의 경사로는 자동이라서 고장이 잦은 편임. 일부 저상버스는 경사로가 고장이 나서 휠체어를 태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출·퇴근 시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저상버스도 있음. 복잡한 시간에 휠체어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배차간격 준수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함.

3) 기타 교통수단

● 기차의 경우 KTX와 무궁화호에 장애인전용석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장애인전용석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뇌병변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전용석은 없음. 또한 장애인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줄 안내요원도 부족한 실정임.

● 항공기의 경우 기내용 휠체어가 1대 밖에 없어서 다수 장애인이 동시에 착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통로 안쪽 좌석을 배정해 장애인의 기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을 운행하는 문제가 있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자기 차량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차장문제 때문임.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임.

●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자체가 이동권 수단임. 발달장애인은 상시 보호대상인데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활동보조인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회활동지원, 이동지원 등에는 지원이 많은데 비해, 힘들고 인내가 더 요구되는 업무를 하려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움. 동일한 활동보조 수가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서비스를 하려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임.

– 발달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활동보조인 차량에게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음. 차량을 주차한 후 발달장애인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은 차량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정보접근권

- 공공기관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접수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의 스마트폰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 청각 장애인의 경우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청각장애인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만, 인터넷 뱅킹, 홈쇼핑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음.
  - 농아인은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데, 한글 해독이 안 되는 농아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접근할 수 없음.

-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접근하는데 있어 스크린 리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 문제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스크린 리더는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지원되지 않은 사이트가 많음.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시각장애인 전용앱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이 불가능함

03 정책 제언

1. 중앙정부의 개선과제

1) 이동권

-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을 원래 도입 취지에 맞도록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이를 위해 1·2급 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현행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함.

2) 정보접근권

- 경찰서, 병원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됨. 모든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상통화를 이용한 공공 수화통역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인터넷상 전자상거래 결재를 할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도 병행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며, 농아인에 대한 문맹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 리더를 개선해야 함.

2. 충남 및 시군의 개선과제

1) 편의시설

● 충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 첫째, 건축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함.
- 둘째, 준공검사 후 용도를 변경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약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셋째,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편의시설증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을 활성화해야 함. 예컨대, 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범음식점 인정제도와 BF 인증 제도를 결합시킨 운영이 가능함.

2) 이동권

●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는

-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추진하는 만큼 충남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행정구역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 통합연계예약시스템을 구축함
- 넷째, 장애인 콜택시 야간·주말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해 이동지원센터가 야간과 주말에도 일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이동지원센터는 즉시콜과 사전예약제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군은 이동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약 현황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여섯째, 충남도는 특별운송수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통해 장애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모든 버스기사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무운행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

●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서비스 차량에 대해 근무시간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임시주차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접근권

-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의 개선과제

- 민간이 행할 수 있는 개선과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이 안드로이드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과 같이 최적화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동권과 관련해서 기차와 비행기의 경우, 장애인 전용석 확대와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함

성 태 규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1-840-1270, tgsung@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과제(2017)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를 요약해 재정리한 것임.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

김명수(2009),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세계헌법연구』15권 1호.

김상구・조홍중(20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김인순(2015), Barrier Free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2016),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복(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지혜(2015),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영길・정세영(2014),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최윤진・박병은(2017), 장애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48권 0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2015a), 2015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2015b),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법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